



**천주교안동교구**  
CATHOLIC DIOCESE OF ANDONG

# 공소사목

발 행 : 36678 안동시 마지락길 77  
천주교 안동교구 사목국

전 화 : (054) 858 - 3114 ~ 5

F A X : (054) 856 - 6101

Home Page : <http://www.acatholic.or.kr>

E-mail : [sa3119@nate.com](mailto:sa3119@nate.com)



강 론



##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번 주일부터는 성체성사에 대한 복음이 낭독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최후만찬 때 사랑의 선물인 성체성사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는 “어리석은 이는 누구나 이리로 들어와라. 지각없는 이에게 지혜가 말한다. 너희는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술을 마셔라.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아라. 예지의 길을 걸어라.”(잠언 9,4-6절)라는 말씀이 낭독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새로운 성전을 짓고 어리석은 자들을 초대하여 거저먹고 마시도록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느님은 잔치 상을 정성껏 준비하였습니다. 소를 잡고 향료를 섞어 포도주를 빚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느님이 준비한 음식을 먹고 행실을 고쳐 새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준비한 음식을 먹고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느님과 거룩한 음식을 모독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자격도 없는 우리는 언제나 하느님의 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여기서 음식은 하느님 자신입니다.

오늘 복음(요한 6장51-58)은 성체성사에 대한 말씀인데 이 복음은 가장 영적인 부분이고 심오한 가르침이 담긴 부분입니다. 그리고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공관복음에 성체성사에 대한 가르침은 없지만 성체성사 제정에 대한 이야기는 나옵니다. 또 반대로 요한복음은 성체성사 제정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야기는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아들어야 하겠습니까? 공관복음보다 나중에 저술된 요한복음이 쓰일 당시 이미 신자들은 성체성사를 거행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체성사 제정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다시 말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들 중 일부는 성체와 성혈을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믿지 않는 신자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습관적으로 성체를 모시거나 형식적으로 성체를 모셨기 때문에 성체성사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쳐

---

주교자 요한복음 사가는 생명의 빵과 성체성사에 대한 가르침을 썼던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요한6,51)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요한6,52) 하며 유대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 한다.”(요한 6,53) 2천 년 전에도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말씀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오늘 날 우리 역시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병이 성령으로 축성되어 성체와 성혈로 변화되었다고 믿기는 하지만 모양은 여전히 제병과 포도주이기 때문에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교부들은 성체성사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250년경에 활동하셨던 오리게네스 교부는 “성체는 주님의 몸이요. 성혈은 주님의 피이므로 빵 조각이나 포도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400년 경 교부이며 주교인 성 아우구스티노는 “여러분이 보듯이 이것이 단순한 빵과 포도주이다. 하지만 일단 축성을 하면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이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교부들의 공통된 믿음은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요한 6,51)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구엔 반 투안 추기경께서도 베트남이 공산화 될 때 정부군에게 체포되어 반혁명죄로 13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1928-2002) 그분은 성체성사에 대하여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체포되었을 때 빈손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다음 날 필요한 옷가지와 치약을 가져왔고, 편지 쓰는 일을 허락받았습니다. 저는 ‘제게 위장약으로 쓸 포도주를 보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썼고, 신자들은 금방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미사주를, 위장약이라고 쓴 꼬리표와 함께 작은 병에 담아 보냈습니다. 그리고 습기를 피하도록 손전등 안에 제병을 숨겨 보냈습니다. 그 때 느꼈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세 방울의 포도주와 한 방울의 물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제대였고 주교좌 성당이었습니다.”(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며) 추기경님은 손바닥을 제대 삼아 포도주 세 방울로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미사에서 축성된 빵과 포도주를 받아 모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체를 모시고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하고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성체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사제는 성체 축성 후 “신앙의 신비여”하고 노래합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체를 모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성체를 모심은 우리에게는 말 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아멘.

정상동 본당 공한영 고스마 신부



## 전례

### 입당 전 안내

교형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중 제20주일인 오늘은 언제나 주님의 지혜로움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며,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말씀과 양식은 주님이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선물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다짐하며 이 전례에 참여합시다.

**입당성가 :** 197번 ‘나그네 양식이요’

### 본기도

† 하느님,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보화를 마련하셨으니,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시어,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을 오롯이 사랑하여,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참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제1독서 : 잠언 9장 1절-6절

**안 내 :**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술을 마셔라.

**묵 상 :** 우리는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과 뜻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빵과 음료를 마시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화 답 송 :**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제2독서 : 에페소서 5장 15절-20절

**안 내 :**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묵 상 :** 주님의 지혜를 입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갑시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 알렐루야.

**복 음 :** 요한 복음 6장 51절-58절

---

**강론** :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1-2쪽)

**예물준비성가** : 216번 ‘십자가에 제헌되신

**영성체성가** : 162번 ‘성체 성혈 그 신비

**영성체 후 묵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저마다 양식을 먹고 자라납니다.

꽃이나 나무들이 먹고 자라나는데 필요한 양식이 있고

짐승들은 각기 그 먹고 살아가는 양식이 달리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이지요.

아기일 때 먹는 것이 다르고 성장 후에 먹는 음식이 다릅니다.

<침묵>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같은 사람이면서도

또 한편으론 하느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삶을 살아가기 위해 먹는 음식 이외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영적인 양식, 곧 주님의 몸을 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침묵>

미사에 빠지지 않고 성체만 모신다고 하느님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성체를 모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까지도 하느님의 사람으로

부끄러움이 없도록 마련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내 생각과 말, 행실이

주님의 뜻과 가르침에 맞갖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시는 하느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양식으로 힘을 내고 이 세상에 하느님의 나라가 굳건히 서도록

사랑과 나눔을 행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공지사항**

**파견성가** : 61번 ‘주 예수와 바꿀수는 없네

※ **공소사목 성금**

박무학

100,000원

현재까지 들어온 성금은 **3,850,000원** 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계좌이체(농협 733-01-246127 천주교안동교구청)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알 림

### ■ 평신도 희년을 맞이한 우리의 다짐

1. 우리는 3초 사랑나누기를 실천하겠습니다.
2. 우리는 정해진 같은 시간에 전 교구민이 함께 기도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3. 우리는 이웃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언어사용을 실천하겠습니다.
4. 우리는 기본질서 지키기를 실천하겠습니다.
5. 우리는 본당행사에 지역민과 함께 하기를 실천하겠습니다.

### ■ 안동교구 50주년 기념

#### 천주교 역사 유물 기증 운동

- 목적 : 천주교 안동교구 역사박물관 설립
- 내용 : 본당 및 개인이 소장한 서적, 성물 (십자가, 목주 등), 사진, 오래된 유물
- 기간 : 2018년 수시로
- ※기증시에는 교구장 명의의 기증증서 전달
- 문의 : 안동교구 50년사 편찬위 간사 박효진 유리안나 010-8560-1654 사무처 858-3111~3

### ■ '성경 통독 일기' 연수(의성지구)

- 일시 : 8월 4일(토)부터 격주 토요일 14~17시  
9월1일, 15일, 29일, 10월13일, 27일,  
11월 3일(총 8회)
- 장소 : 의성성당
- 준비물 : 성경, 필기도구 등
- 회비 : 1인 4만원
- 대상 : 의성지구 신자

### ■ 가나 혼인 강좌

- 일시 : 8월 25일(토) 13:00-18:00
- 장소 : 안동 교구청 (3층 대회의실)
- 참가비 : 1인 1만원
- 준비물 : 미사 준비, 필기구
- 신청마감 : 8월 11일까지 사목국으로
- 신청자격 : 결혼을 앞둔 남·여

### ■ 청년연합회 성지순례

- 일시 : 9월2일(주일)
- 장소 : 한실교우촌 및 상주 옥터
- 준비물 : 운동화, 편한 복장, 개인 도시락, 물
- 회비 : 5천원
- 신청마감 : 8월24일(금)까지 사목국으로

### ■ 여학생 수도 성소자 성지순례

- 일시 : 9월9일(주일)
- 장소 : 천호성지, 및 나바위성지
- 출발시간 : 휴천동 07:30/모전동 08:00
- 준비물 : 운동화, 편한 복장, 미사 준비, 목주

### ■ 예비신학생 성지순례

- 일시 : 9월16일(주일)
- 장소 : 한실 교우촌
- 대상 : 안동교구 예비신학생
- 준비물 : 운동화, 편한복장, 미사준비, 목주

### ■ 순교자 성월 기념

#### 변지안(아녜스) 작가와 함께하는 영화 산책

- 주제 : "응답하셨습니다?" (영화 '침묵'을 보며)
- 일시 : 9월28일(금) 19:00~21:00
- 장소 : 교구청 강당
- 작가소개 : CJ E&M 작가, 작가 창작집단 <작심> 대표, 영화 <아빠는 딸> 각색, 영화 팟캐스트 <맥거핀> 진행자, 제주문 화재단 <고소리> 연극 각본, 현재 중국과 한국에서 영화 시나리오 작업 중이며 현재 <흙> <더 라인> <미스스마일> <기담2> 등이 캐스팅 중

### ■ 갈전성당 성전건립기금 마련 판매사업

- 건강 썩 미숫가루 가격 : 1kg 15,000원 (청정지역 썩과 유기농 곡물 미숫가루)
- 주문 및 상담 : 정 카타리나 010-8573-5979
- 계좌번호 : 농협 301-0214-6392-11 (재단법인 천주교 안동교구 유지재단)

### ■ 치유. 은사세미나

- 일시 : 9월7일(금) 14:00~9일(월) 16:00
- 장소 : 농은 수련원
- 회비 : 10만원
- 신청 : 8월26일(주일)까지 성령봉사회 사무실 010-8964-0958

### ■ 2018년 평의회 간부 및 Pr. 단장 피정

- 일시 : 9월2일(주일) 10:00~15:30
- 장소 : 가톨릭 상지대학교 소피아관
- 대상 : 각 평의회 간부 및 Pr. 단장
- 준비물 : 활동수첩, 목주, 필기도구 월례회의 준비(해당자)
- 회비 : 1인 1만원
- 문의 : 장주현 프란치스코 010-8851-4467

---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교황 권고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이 2016년 4월 8일(금) 로마 시각 낮 12시(한국 시각 저녁 7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소 집했던 가정에 관한 두 차례의 세계주교대의원회의(주교 시노드) 곧 2014년 제3차 임시총회와 2015년 제14차 정기총회 결과를 소개하고 발전시킨 후속 권고로서, 서론과 9개 장 32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소사목지에서는 일부분을 발췌하여 게재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 사랑의 기쁨(*Amoris laetitia*)

### 제9장

#### 혼인과 가정의 영성

#### 초자연적 친교의 영성

316. 가정의 친교에 대한 긍정적 체험은 일상생활에서의 성화와 신비로운 성장의 참된 길이며, 하느님과 내밀한 일치로 이루는 수단이 됩니다. 사실, 가정에서 요구되는 형제애와 공동체의 삶은 마음을 더 활짝 열고 주님과 더욱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느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은 “죽음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저의 선임자이신 베네딕토 16세 교황께서는 “이웃에게 눈을 감으면 하느님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사랑은 “어둠에 싸인 세상을 언제나 밝혀 주는” 유일한 빛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 “인간은…… 천부의 사회적 차원을 지니고 있고” “인간의 사회적 본성의 원초적이며 기본적인 표현은 부부 사이와 가정에 내재하기” 때문에 영성은 가정의 친교 안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영적 열정을 지닌 이들은 가정이 성령의 생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장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정을 주님께서 그들을 신비한 일치의 경지로 이끌어 주시는 길로 여깁니다.

---

## 파스카의 빛 안에서 드리는 기도로 하나 되기

317. 가정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가정생활 전체를 일치시켜 주시고 빛으로 밝혀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 내며, 주님의 품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도 견디어 낼 수 있습니다. 버림받으신 예수님과 하나 되면 가정이 가장 어려울 때에도 파경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성령의 은총으로 혼인 생활을 통하여 점점 더 거룩해지고, 더 나아가 어려움과 고통을 사랑의 선물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신비에 함께하면서도 거룩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쁨과 휴식과 잔치의 때, 그리고 성(性)조차도 주님 부활의 온전한 삶에 참여하는 체험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는 일상의 다양한 행위로 “부활하신 주님의 감추어진 현존을 체험하는 하느님 계시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318. 가정의 기도는 이러한 파스카 신앙을 표현하고 굳건하게 하느 탁월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살아 계신 주님 앞에 함께 모여 그분께 우리의 근심거리를 말씀드리고, 우리 가정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간청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며 하느님께 삶과 좋은 것들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동정 마리아님께서 자애로운 당신의 망토 안에 우리를 품어 주시기를 간청할 수 있습니다. 소박한 말로 드리는 이러한 기도의 시간은 우리 가정에 커다란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대중 신심의 다양한 표현들은 많은 가정에게 영성의 보화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길은 특히 주일 성찬례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그 결정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정의 문을 두드리시어 성찬의 만찬을 가정과 함께 나누고자 하십니다. 그곳에서 부부는 그들을 결합시켜 준 파스카의 계약을 늘 새롭게 맺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와 맺으신 계약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례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이 실현되는 새로운 계약의 성사입니다. 그래서 혼인 생활고 성찬례의 이러한 긴밀한 유대는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성찬의 양식은 부부에게 혼인 계약을 “가정 교호회”로 날마다 실천하는 데에 필요한 힘과 동기가 됩니다.

- 다음에 계속 -



## 깊고 푸른 강물

신효원 프란치스코  
(안동가톨릭문인회)

오늘도 불별입니다. 바다를 그리다 바다보다 더 깊고 푸른 강물이 생각나서 ‘닥터 지바고’를 씁니다. 이 소설 안에 그런 강물이 출렁이거든요. 마지막 장면은 여전히 멍멍한데요. 여주인공 라라가 거리에서 우연히 지바고의 장례식 안내판을 봅니다. 서로에게 너무나 애뒀었던 그들은 그렇게 재회를 합니다. 라라가 작별인사를 이렇게 하더군요. “잘 가요. 나의 위대하고 그리운 사랑. 안녕. 나의 자랑 나의 깊고 푸른 강물이여. 나는 당신의 끊임없이 흐르는 물결소리와 당신의 강물 속에 잠기기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당신은 언제 그런 깊고 푸른 강물 속에 잠겨보셨는지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푸른 물결로 끊임없이 흘러가시는지요? 지바고 덕분에 잠시 더위를 잊습니다.

또 멋진 사랑이야기입니다. 1971년 평양에 유학 간 23살 베트남 청년이 화학실험실에서 만난 북한 여성에게 한눈에 반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아내로 삼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한 살 많은 이영희였습니다. 두 사람은 일 년 반 동안 연애를 했지만 1973년 팜녹칸은 혼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나라 다 국제결혼을 금지했기 때문이지요.

북한이 외국인과의 접촉을 강력히 금지하는 바람에 1992년부터는 몰래 주고받던 편지도 끊어버렸습니다. 리씨는 마지막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를 먹을지라도 우리의 사랑은 영원히 젊어요.’ 칸씨는 수차례 북한대사관을 찾아가서 간청했으나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 죽었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2001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 때 칸씨는 간곡한 편지를 씁니다. 몇 달 후 결혼을 허락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54세의 칸씨와 55세 리씨는 하노이에서 30년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제 칠십대가 된 부부는 조출한 아파트에 살며 함께 오토바이를 타거나 손을 잡고 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헤어질 때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거라 생각했는데 그는 결혼도 하지 않고 30년 동안 나에게 편지를 씁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내 감정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영화이야기입니다. ‘건축학개론’을 보셨는지요? 스무 살에 두 사람이 만나 좋아했습니다. 헤어지는 건 여전히 조그만 차이 때문이더군요. 머뭇거림, 염려, 혼자만의 짐작과 판단, 혹은 어떤 우연 등. 그리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쓸쓸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도무지 채울 수 없는 구석이 있었으니까요.

여자는 이혼을 하고 남자는 삼십대 중반까지 혼자였는데 건축주와 건축가로 다시 만납니다. 함께 집을 지으면서 두 사람은 첫사랑을 확인해 갑니다. 집이 완성되고 남자는 결혼해서 미국으로 떠납니다. 새로 지은 옛집에서 이제는 여자도 넉넉하고 행복합니다.

헤어졌다고 사랑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 안에서 시간 속에서 이어지니까요. 다만 모양과 방법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리고 떠나지 않은 그 기억들이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이깃 더위에 주눅 들지 말고 미루었던 사랑을 완성해 보시지요. 더러는 깨끗이 이별도 하고. 사랑은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 가는 것이니까요.